인간과 하천 3
River & Culture

동구밖 로맨스, 그리고 저수지

이 자 영 | (주)EDI환경디자인 팀장
(ljy3331@hanmail.net)

1. 고향의 봄 그리고 과수원길

고향의 봄

작곡 홍난파 | 작사 이원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궐 차리인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2절 생략-

꽃대궐 차린 동네를 고향으로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노랫속 풍경은 한국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동경의 세계요, 마음속 고향의 풍경일 것이다.

산골마을 속에 피어난 아기자기한 꽃망울들과 냇가의 수양버들에서는 향기로운 냄새와 살랑이는 바람이 느껴지는 듯하다.

우리의 옛 동요들의 가사는 어쩌면 이렇게 감성을 자극하는지, 감탄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고향을 노래하는 또 하나의 노래, 내가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노래가 있다.

과수원길

박화목 작시 / 김공선 작곡

동구밖 과수원길
아카시아꽃이 활짝 폈네
아카시아꽃 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보며 쌩긋
아카시아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길

역시 마찬가지이다. 아카시아꽃 이파리 날리는 곳에서 연애를 해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노랫말에 등장하는 두 명의 주인공들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이 갈 듯하다. 물론 이들을 꼭 남녀주인공으로 보는 것이 개인적 취향이나 경험이 반사된 것이라 해도 할 말은 없다. 사실 엄마와 아이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남녀는 남녀이되 노년일 수도, 청년들일 수도, 소년들일 수도 있을 터. 각자 상상하면 될 듯 하지만 남녀가, 그것도 젊은 20대 즈음의 남녀가 유력한 이유는 이들이 동구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동구는 '동네'의 옛우리말인데 이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자, 혹은 단둘이 조용히 자기들만의 공간을 찾아 동네 밖으로 산보를 나왔으리라. 아카

시아꽃에서 느껴지는 향기로운 냄새가 이들의 애틋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그 행복을 더욱 진하게 느끼게 해준다. 꽃잎들이 눈송이처럼 날리는 곳에서 달빛을 받으면 더욱 눈부시겠지. 이런 장소에서라면 그냥 눈만 마주치면 될 뿐, 무슨 말이 더 필요 있으랴.

2. 다시 주목받는 산골, 그리고 SLOW

마나 편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 편리하고 빠르고 똑똑하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교육을 위해 도시로 오고 있는가.

산골은 갈수록 인구가 줄고 늙어가고 있는데 도시는 갈수록 팽창이다.

요즈음의 아이들이 고향의 봄이나 과수원길의 정서를 알까? 댄스그룹 아이돌의 노래라면 몰라도.

그런데 요새 다시 산골이 주목받고 있다.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느리게 사는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슬로시티운동이 있겠고 제주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올레길이나 둘레길 등도 천천히 걸으며 살펴보고 둘러보면서 느껴보자는 같은 맥락의 의미다. 이제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아이들의 감성교육을 위해서 산골을 다시 찾고 있다.

그러면서 그동안 도시에 집중되어 있던 개발의 독주가 이제 산골로 내려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버리고 간 고향들이지만, 청년보다 노인이 많은 늙어버린 마을이지만, 이제금 다시 도시인들의 정서를 달래주고 아이들의 감성을 채워줄 수 있는 곳으로 다시 계획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조형 녹색관광 개발 사업, 농촌진흥청의 농촌관광마을 사업, 관광어촌 사업 등 이제 농산촌이라는 테마에 '녹색'의 옷을 입혀서 손질되고 있다.

그리고 그 계획가들의 마음속에 이런 노래들이 새겨져 있길 바랄 뿐이다.

3. 금봉저수지

이러한 철학을 담고 금봉저수지 디자인이 시작되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금봉저수지는 '금봉사과'라는 농약을 쓰지 않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사과를 키우는 대추정마을을 끼고 있는 저수지다. 그리고 이 저수지는 마을 사람들이 자식새끼처럼 아끼고 아끼는 금쪽같은 저수지다. 그래서 지금도 그 흔한 배쓰 한 마리 살지 않고 있으며 마을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순번을 정하여 저수지를 순찰하고 있단다.

마을 주변으로는 소나무숲이 울창한데 딱 봐도 보통의 소나무가 아니다. 위로 쭉쭉 뻗은 늠름하고 굵은 주간을 가진 나무들이 아름드리 숲을 이루고 있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봉화 자연송이를 만날 수도 있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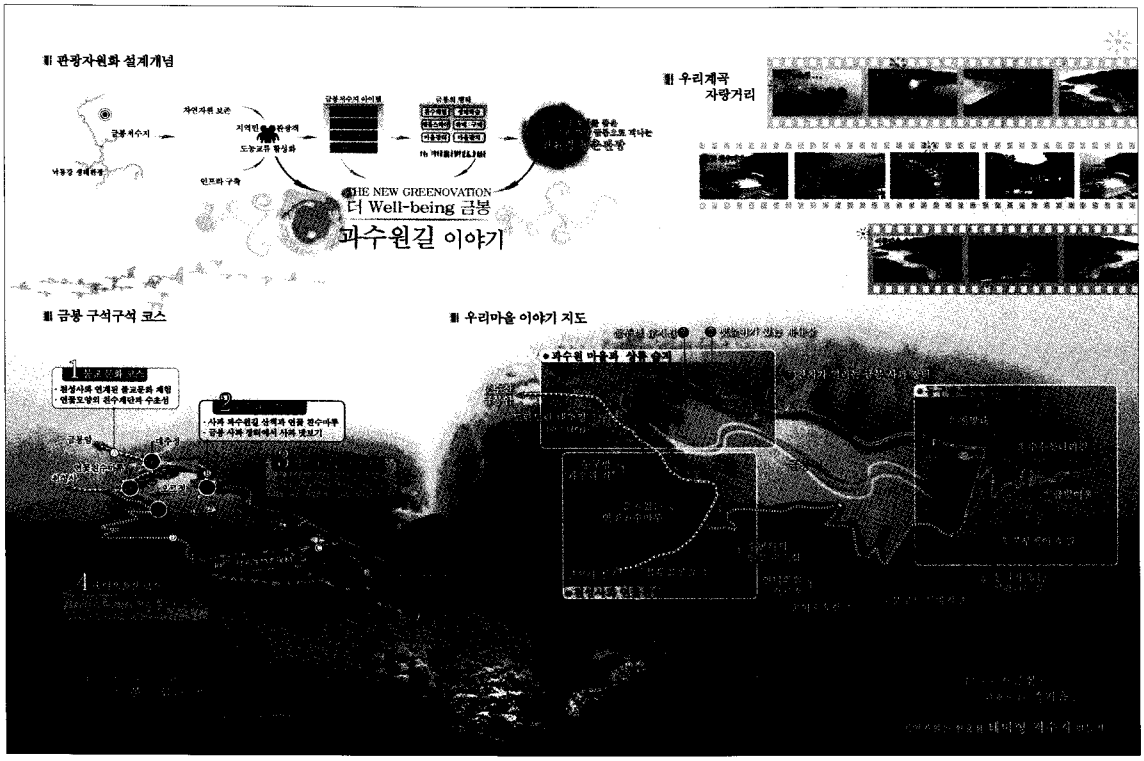
더 멀리 저수지의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내는 산은 문수산이다. 독수리 형세를 한 문수산은 풍수지리상 고관대작과 노승대불이 나는 곳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곳 출신의 고관대작으로 조선시대 삼봉 정도전이 있으며 노승대불로는 현재 문수산 금봉암의 큰 스님과 축서사의 큰 스님 이렇게 두 분이 비유되곤 한다. 또한 금봉이라는 지명유래를 살펴보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이 '문수산의 산세가 예사롭지 않으니 봉분을 금한다'고 하여 금봉이라고 하니 이곳이 얼마나 명소인지 짐작이 가고도 남음이다. 이러한 산골의 중심에 금봉저수지가 있고 금봉저수지는 주변으로 위에서 언급한 대추정마을과 작은 암자를 끼고 있다. 그리고 저수지는 대추정마을 사람들이 대부분 종사하는 사과 과수원 바로 옆에 있어 그야말로 동구밖 과수원 길이자 동구밖 저수지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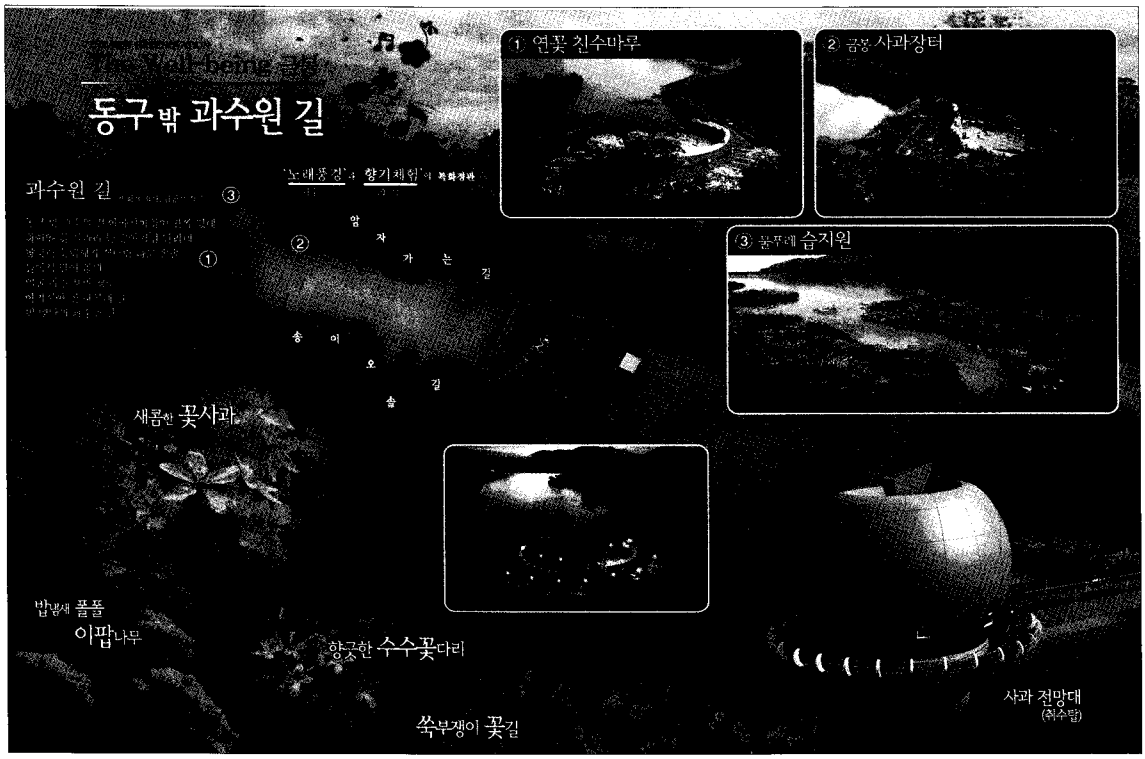
자, 이제 상상해보자.

누군가는 이 저수지에서 호사롭게 명상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과수일을 하다 쉬러 올 것이다. 오늘의 순번인 누군가는 저수지를 감시하러 올 것이고 또 누군가는 소소하게 사람들을 모아 이야기잔치를 하며 전이라도 부쳐먹겠지. 아이들은 송이를 따러 오솔길로 갈테고 누군가는 암자에 계신 스님을 뵈러

갈테지. 그리고 또 누군가는 동구밖을 나와 둘이 조용히 손을 잡고 나란히 걷겠지. 그러다 마주보고 앉아 생긋 웃을지도...

마을사람들의 소소한 로맨스들이 일어나는 곳, 그 중심에 있는 장소로서 저수지를 다음과 같이 설계하였다.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3공구, 한국농어촌공사 발주(2010), 한화건설 컨소시엄 설계안, ED환경디자인 경관 및 조경설계

4. 시와 노래가 담긴 아름다운 그림(경관) 창조를 위한 제언

옛날부터 그림과 시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다. 시는 모양이 없는 그림이고, 그림은 소리가 없는 시라는 말도 있었다. 표현 방식만 다른 것일 뿐 그 정신은 같은 지류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옛그림을 보면 그림만으로도 멋진데 시 한수 얻어 넣곤 했다. 또 시 하나만으로도 그림 같은 풍경이 그려지기도 하고 말이다.

부연설명을 하자면, 경관의 중요성과 인문학(시, 소설 등)의 중요성은 그 맥락이 같다.

설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그 전공이 토목이든, 건축이든, 조경이든 결국 경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기술적으로만 접근해서는 우리의 환경이 아름다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국토관련 설계자라면, 또한 공무원이나 관계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시나 노래나 그림을 품어야 한다. 학교교육 과정으로도 좋고 회사에서 별도로 교육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국토경관 창출자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노자와 그의 스승 상용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글을 마친다.

'시의 힘'

옛날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노자의 스승은 상용이란 사람이었다. 스승은 늙고 병들어 이제 곧 숨을 거두려고 하였다. 노자는 마지막으로 스승에게 가르침을 청하였다.

"선생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가르쳐 주실 말씀이 없으신지요?"

이번에는 스승이 입을 크게 벌렸다.

"내 입속을 보거라. 내 혀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 이가 있느냐?"

상용은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빨이 다 빠지고 없었다.

"하나도 없습니다. 선생님!"

스승은 곧바로 제자에게 말했다.

"알겠느냐?"

노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빨처럼 딱딱하고 강한 것은 먼저 없어지고 혀처럼 약하고 부드러운 것은 오래 남는다는 말씀이시군요."

상용이 말한 것을 정리해 보면 부드러움으로 강한 것을 이기라는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직접 말하면 될 것을 가지고 상용은 일부러 빙빙 둘러서 비유를 통해 설명했다. 왜 상용은 직접 쉽게 말하지 않고 일부러 어렵게 돌려서 이야기했을까?

사실 상용이 이 말을 직접 했다면 그것은 아무런 느낌도 주지 못하는 싱거운 말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대신에 상용은 직접 입을 벌려서 혀를 보여 주고 또 이빨을 보여준 후 "알겠느냐?" 하고 물었다. 이렇게 해서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평범한 교훈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인상 깊게 심어줄 수가 있었다.

시도 마찬가지다. 시라는 것은 상용의 말처럼 직접 말하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돌려서 말하고 감춰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돌려서 말하는 가운데, 저도 모르게 느낌이 일어나고 깨달음이 생겨난다. 이렇게 해서 생겨난 느낌과 깨달음은 지워지지 않고 오래도록 내 마음에서 남는다.

-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중에서 -

※ 생각해 봅시다.

멋진 설계도 중요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뒷받침도 중요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예산 편성이다.

위에서 소개한 저수지3공구의 발주내역을 보면, 경관이나 조경쪽으로는 예산이 0원이었다. 입찰안내서에 경관, 환경, 지역문화 등이 여러 번 나오면서도 말이다. 설계심의기준도 보면 설계점수 100점 만점에 무려 15점이다. 정작 중요한 예산은 잡지 않으면서 말로만 외치는 것은 곤란하다. 아울러 작품을 그릴 수 있는 충분한 설계시간을 주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재정적 환경과 제도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